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6년 4월 28일(화)	
담당 부서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 예방팀장 이영화 ☎728-6570 •담당 주무관 김지영 ☎728-6571
사진	있음(15시 제공)		보도시점 배포 즉시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시민공원역서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인천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차남희, 이하 센터)가 28일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인천교통공사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센터는 지하철역을 출입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펼쳤다.

최근 지역 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치매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치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며 “나와 먼 이야기라는 생각을 버리고 젊은 시절부터 치매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 검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센터는 ▲치매 등록 관리 ▲치매 공공 후견 ▲치매 예방 교육 ▲가족 교실 ▲치매 환자 쉼터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센터는 이번 캠페인 이후로도 인천교통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시민공원역과 주안역에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